

## 법어

임진년 새해를 2600번째 성도절과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진리의 빛을 밝히신 날로 새해를 여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분들이 지혜와 자비가 스스로 가득하라는 부처님의 당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용의 해입니다. 용은 민생의 삶속에서 무궁무진한 조화의 능력을 가진 신령스러운 동물이면서, 한편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불교에서도 팔부신중의 하나로 불법을 수호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곡절을 풀어주는 행복의 신으로 여겨진 용의 기운으로, 올 한해 우리나라가 태평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원은 우리 사부대중 모두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국민은 참으로 많은 성과와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20대 선진국인 G20 국가 가운데 하나로 우뚝 섰고, 지난해에는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이룩하였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유례를 찾기 힘든 성장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내 집 마련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물론 농업까지 황폐화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률이 최고를 기록하고,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국가들 가운데서 하위를 맴도는 것은 우리 시대의 우울한 한 단면이면서 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사회 현실을 위무(慰撫)하고 희망을 전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암울한 사회에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 가르침 아래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여의고 밝은 희망의 길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지금의 한국사회에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올해가 부처님의 성도절로 시작된 것은 바로 우리 불자들이 이 땅에 부처님 성도의 빛을 널리 펼치라는 당부로 알아야 합니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화

성장이 진행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중생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두 번의 선거를 비롯해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공존과 번영, 평화와 행복에 맞춰져야 하며, 남과 북은 공존과 상생의 날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은 언제나 눈 밝은 수행자처럼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용의 해를 맞아 우리 민족의 웅비와 비상, 그리고 희망의 길을 찾고자 진력하시는 회원종단 대덕스님들과 불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승천하는 용이 민족의 포부이자 희망을 나타내는 것처럼 임진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년 1월 1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